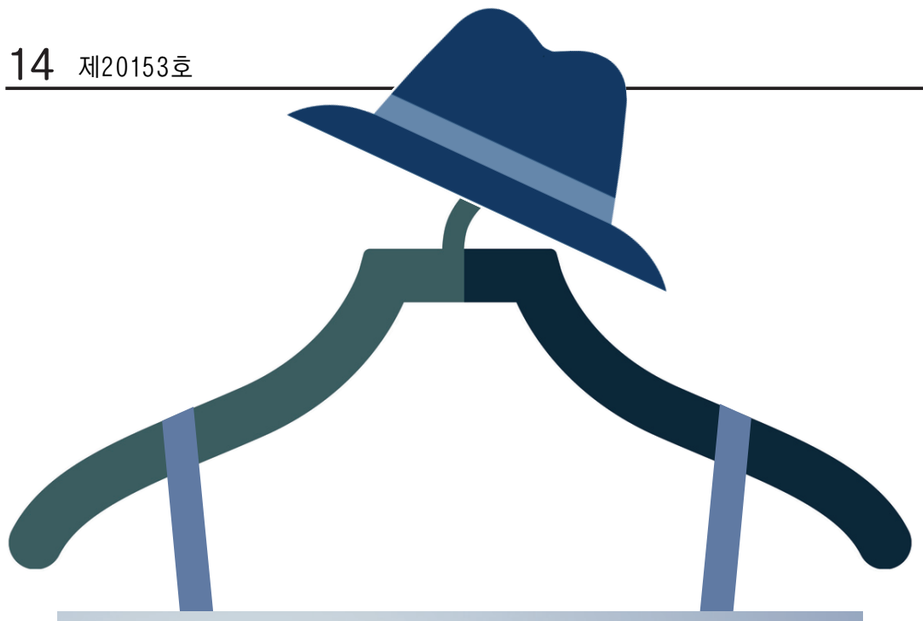

패션, 복고를 입다

‘응답하라…’ 인기에 진 패션, 롱코트·부츠 유행

광주 백화점업계 상품별 매출 최고 30% 급증

삶이 힘든 탓일까, 지역 유통가에도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모 방송국이 과거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응답하라…’ 시리즈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과거 패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15년 10월~12월)간 복고 아이템 매출이 상품별로 10~30% 이상씩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 가을부터 인기를 모은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여성패션 브랜드별로 약 20~30% 수준의 신장률을 보이며 복고바람을 주도했다.

최근 잘 팔리고 있는 복고 스타일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템에 트렌디함이 더해져 더욱 인기다.

이 외에도 방한용품이자 스타일을 살려주는 아이템인 모자에도 복고바람이 불고 있다.

중년 아저씨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페도라(중절모) 상품의 경우 남성용과 여성용 모두 인기를 끌며 잡화 브랜드별로 10% 수준의 신장률을 보였다.

진캐주얼 상품의 경우 지난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청·청(청바지+청재킷) 패션 상품군의 인기도 남달랐다.

청재킷으로 알려진 데님 재킷과 통이 넓은 나팔바지 스타일의 청바지가 인기를 끌었다. 데님 바지와 잘 어울리는 누빔 점퍼(일명 깔깔이) 등 복고 스타일의 대표 아이템들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상품들이 매장별로 전년 대비 10~30%씩 늘었다.

광주신세계도 최근 3주(2015년 12월12~1월2일)간 복고풍 캐주얼 브랜드(게스코리아, 리바이스, 버커루 등)의 경우 평균 13% 매출 신장률 기록했다.

이 백화점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복고’를 컨셉으로 정한 ‘고객 감사 대제전’을 진행. 매출 신장률 18%를 기록했다.

또 통이 넓은 바지를 비롯해 데님이나 가죽소재의 복고풍 스타일의 품목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복고 열풍 속에 패딩과 앵클부츠를 밀어내고 롱코트와 롱부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마켓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월30일~12월29일) 한 달 동안 남성용 롱코트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여성용 롱코트 판매량은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롱카디건 판매량도 605% 급증했다.

이번 겨울에는 굽이 낮은 복고풍 롱부츠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니하이(knee-high)’ 롱부츠가 유행하면서 가죽 롱부츠 판매량도 같은 기간 53% 늘었다.

길이가 긴 패션 아이템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난해 초부터 평범함 속에서 개성을 찾는 놈코어룩과 복고풍의 오버사이즈 디자인 제품이 유행을 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출 중소기업 절반 이상 “새해 전망 암울”

IBK 경제연구소 설문…수출 증가 전망 전년비 14%P 하락

수출 중소기업들이 2016년 새해 경기 전망을 정부나 주요 연구소들보다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IBK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6~18일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수출 중소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평균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3.1%, 국제통화기금·한국은행의 3.2%,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 등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0.5~0.7%포인트 낮은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서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도 지난해보다 많아졌다. 조사 대상 기업들 가운데 올해 수출 전망이 2015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 곳이 51%로 가장 많았고,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응답한 곳은 37%를 기록했다.

2014년 말에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과반인 51.4%의 기업이 전년보다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비율이 1년 사이에 1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함께 진행한 환율 전망 조사 결과에서도 수출 기업들이 새해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엿보였다. 수출 기업들이 새해 경영계획을 세우면서 가정한 2016년의 원·달러 환율 평균치는 1168원이었다.

연구소는 “조사를 진행하던 시점의 환율 수준이 1,180원대임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경영계획을 현실보다 보수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30일 문을 닫은 2015년의 원·달러 환율 평균치는 1131.49원이었다.

/연합뉴스

삼성 TV 슈퍼 세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지난 1일 서울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삼성전자 TV SUPER SALE’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폐지 방침에 발맞춰 해당 TV 구매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금액 할인과 함께 이와 동일한 금액을 포인트나 캐시백으로 추가 증정하는 2배의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전북은행 금융서비스 하나로

입금·지급·조회 등 6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금융서비스가 오는 6일부터 하나로 제공된다.

JB금융지주(회장 김한)에 따르면 계열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영업창구 공동활용 업무 위수탁을 통해 양행 간 입금, 지급, 조회, 제 증명서 발급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은행 간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다.

이에 따라 JB금융그룹 내 Two Bank(광주은행, 전북은행)를 거래중인 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창구(지역별, 은행별)에 대한 제약이 없이 편리하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과의 영업창구는 총 235곳이다.

가능한 업무는 유통장 입금, 유통장 지급, 계좌조회, 잔액조회, 거래기록조회, 통장기장 및 만란으로 인한 통장재발행, 수신잔액증명서 발급, 부채잔액증명서, 대출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발급 업무이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영업창구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 위수탁은 거접근성 및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며“JB금융그룹 역시 Two Bank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이하 광주진흥원)이 2016년 새해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3일 광주진흥원은 올해에는 ICT산업진흥본부, 콘텐츠산업진흥본부, 투자인력본부를 신설해 1실 3본부 8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ICT산업진흥본부와 콘텐츠산업진흥본부, 투자인력본부, 웹(앱)콘텐츠사업팀, 마케팅투자팀, 창의인재팀을 신설했다. 조직 개편에 맞춰 부장을 내부 승진 발탁인사로 전면 쇄신하고 정책기획팀장을 제외한 모든 팀장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 내일 DJ센터 ‘신년 인사회’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에서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새해 포부를 밝히며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연초 지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경제계 행사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상호간 신년하례를 시작으로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윤장현 광주시장·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의 신년사, 건배 제의, 다과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68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3	20	27	28	40	1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010,930,883	16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9,907,016	45
3	5개 숫자일치	996,974	2,704
4	4개 숫자일치	50,000	117,974
5	3개 숫자일치	5,000	1,700,964